



# 국립탐라문화유산센터 '밈그림' 그린다

### 국가유산청 올해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2억원 투입... 이달 중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 센터 부지·조직·시설 등 전반 검토...탄핵 여파 '변수'

오는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탐라문화유산센터'의 밈그림이 올해 안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탄핵 정국'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향후 정상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원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 이달 안에 조달청에 용역 계약을 의뢰해 2-3월 중에 용역사 선정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이다. 이르면 오는 10-11월에는 용역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립탐라문화유산센터 건립 계획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기획재정부 사전타당성 평가, 2027년 실시설계, 2028년 착공을 거쳐 2030년 개관이라는 시간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 오랜 역사의 문화·자연·유무형 유산이 산재한 제주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재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

굴'을 비롯해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약 1500건의 비지정 국가유산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용역에선 센터 건립 타당성을 비롯해 도내 국가유산 현황 분석이 진행된다.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더해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 향후 소요 예산도 구체적으로 추정될 예정이다. 센터 건립 이후 조직과 인력,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건립의 밈그림이 그려지면 사업 내용도 구체화된다. 다만 현재 예상 사업비가 4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관문' 통과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론화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여파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국립탐라문화유산센터 건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가유산청 국정 과제(2023년)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탄핵 등과 관계 없이 절차에 맞춰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내년 타당성 조사까지 거친 이후에 예산 반영 등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에서도 탐라 관련 유적에 대한 실제 규정과 발굴조사 연구가 타 문화권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과 각종 난개발로 제주 고유의 경관과 자원 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국립연구소'의 제주 설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후 2022년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2023년 개최한 '올해의 책' 선포식.

우당도서관 제공

## "함께 읽을 '올해의 책' 추천해 주세요"

### 제주시민 추천 도서 공모

우당도서관이 새해 제주 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올해의 책'을 추천받는다. '책 읽는 제주시'를 위해 2014년부터 11년째 이어 오는 행보다.

올해의 책은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를 위해 우당도서관은 오는 2월 3일까지 시민 추천 도서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제주책 등 4개 부문별로 1인당 3권, 최대 12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기준은 ▷각 부문에 맞는 연령층이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

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한 도서 ▷다양한 독후활동이 가능한 도서 등이다. 우당도서관 누리집 '책섬, 제주' (<http://woodang.jeju.go.kr/>)의 '제주시 올해의 책' 코너를 통해 추천하면 된다.

시민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책은 도서관 주간인 오는 4월 12일에 발표된다. 올 한 해 시민들이 가까이 하며 읽을 수 있도록 전도민 독서 마라톤대회, 작가 북 콘서트 등도 예정됐다.

양철안 우당도서관장은 "제주시민이 '올해의 책' 함께 읽기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독서문화를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 경쾌한 선율에 담은 '새해 소망'

### 제주교향악단 신년 음악회

도립제주교향악단이 올해 첫 무대를 열고 관객을 만난다.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여는 '신년음악회'에서다.

도립제주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이기도 한 이번 공연은 '새해 소망'을 담았다. 올 한 해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획된 무대다. 호서대학교 초빙교수이자 소프라노 이한나가 곡 해설과 협

연에 나서 흥미를 더한다.

새해 첫 공연은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작품을 오고 간다. 이탈리아 민속 선율에 러시아적인 정서가 입혀진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를 시작으로 피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구노의 '파우스트의 발레 음악', 활기 넘치는 왈츠와 폴카로 구성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나의 후자님' 등이 이어나간다. 마지막은 무대에 웅장함

을 더할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 작품 80'이 장식한다.

관람 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제주예술단 누리집 (<http://jeju.go.kr/artjeju/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일반단체 4000원(10인 이상), 청소년 3000원이다. 65세 이상 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64-728-2777. 김지은기자

### 제주문예재단 이사 제공모 이달 13일까지 지원서 접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비상임 이사를 제공모한다.

모집 인원은 7명이다. 앞서 제주문예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 공모에서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2배수가 되지 않아 제공모를 결정했다.

문예재단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거쳐 모집 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를 제주시도에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임기는 2년이다.

재단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자격 요건은 재단과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는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 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 064-800-9113. 김지은기자

## "AI 활용력 키우고 챗GPT 글쓰기도"

###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올해 163개 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기르고 챗GPT를 이용해 자신의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올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 교육 과정은 AI 활용능력 2급 시험 대비, 챗GPT 전자책 글쓰기, 화훼장식기능사 시험 대비, 퍼스널컬러&셀프메이크업 등 19개 과정이다. 지난해 9-10월 도민,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와 디지털 대전환에 맞춘 사회 변화를 반영했다.

센터는 교육 수요가 많은 소소한 집수리와 엑셀 기초·활용 과정 등도

확대한다. 외국어 과정의 경우 수강생이 꾸준히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1-3단계 수준별로 운영한다. 읍면지역 여성과 단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설문대마을 학교와 배달 강좌도 늘린다.

이런 사항이 반영된 올해 연간 교육 일정은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163개 교육과정이 5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교육이 예정된 바로 전달 1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19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센터는 오는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뮤지컬, 연극, 대중가요 등 공연과 문화 행사로 꾸며진다.

김지은기자

### 2025년 제주↔필리핀전세기 4월

동양의 진주 마닐라, 골프천국 클락

제주→마닐라 22:00-24:00 | 마닐라→제주 17:00-21:00

항공권 (한정판매)	마닐라관광 (5성급/쇼핑1회)	클락골프 (3색/54H)
780,000	1,250,000	가격: 1,890,000 실속: 1,490,000

Charter Flights

royalair philippines

※ 양 국가 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운항날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3월	연휴	02.28(금) _ 03.03(월)
4월	시즌	04.17(목) _ 04.20(일)
6월	연휴	06.05(목) _ 06.08(일)
10월	추석	10.08(수) _ 10.11(토)
11월	시즌	10.30(목) _ 11.02(일)
12월	년말	12.26(금) _ 12.29(월)

### 제주직항

상해,오진 4월 목요일 노탑,노음선,노쇼핑! 999,000~

대만 4월 매일 899,000~

청도 5월 1/14(화), 2/11(화) 999,000 노쇼핑

나트랑,달랏 4월 02.28(금)~03.03(월) 1,290,000 베트남전세기

### 청주출발

장가계 5성호텔! 노탑! 노음선!

3박4일(매주 수) 1,090,000~

4박5일(매주 토) 1,190,000~